

인공판막 재치환술의 임상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윤정섭·조민섭·김치경·조건현·왕영필·이선희·곽문섭·김세화

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89년 1월 1일부터 1995년 8월 31일까지 20예의 심장판막 재치환술을 경험하였다.

남자 7예, 여자 13예로 평균연령은 41.6 ± 12.5 세 이었다. 기왕의 판막치환은 11예가 조직판막이었고 9예가 기계판막이었다. 재치환 수술시까지 인공심장판막이 체내에 있었던 기간은 조직판막에서 78.4 ± 47.1 개월, 기계판막 48.8 ± 44.3 개월이었다. 재치환된 판막은 승모판막 15예, 대동맥판막 4예, 삼첨판막 1예 이었다. 판막 재치환의 원인은 조직판막에서는 치환 수술후 발생한 판막의 구조적 결함 11예, 판막주위누출 2예, 심내막염 1예 이었다. 기계판막에서는 판막륜 조직의 과잉증식 4예, 판막주위누출 3예, 판막혈전 2예 이었다. 재치환 수술후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 3예, 저심박출증 1예, 심방조동 1예 이었다. 환자들은 평균 25.5개월간 추적 관찰되었다. 술후 1명은 수술당일 저심박출증으로 사망하였고 1명은 확장성 심근증으로 술후 3년에 사망하였다.